

● Risk Barometer: EXTREME (Volatility Alert)

글로벌 마켓 브리핑: 지정학적 충격과 엇갈린 증시

2026.07.09 | 중동 리스크 발작, 코스피 중급 하락장 진입, 그리고 핵심 변곡점

[KOSPI]

7,246.79

사이드카 발동 후 관망

[WTI]

\$74.64

+5.2% 급등

[US 10Y]

4.537%

+5bp 상승

The Catalyst: 지정학적 뇌관이 촉발한 연쇄 충격

Domino Pipeline

01 / Event



트럼프 전 대통령
'이란-휴전 합의
종료' 발언 및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02 / Commodity



WTI 원유
5.2% 급등 ↑
(\$74.64 마감)

03 / R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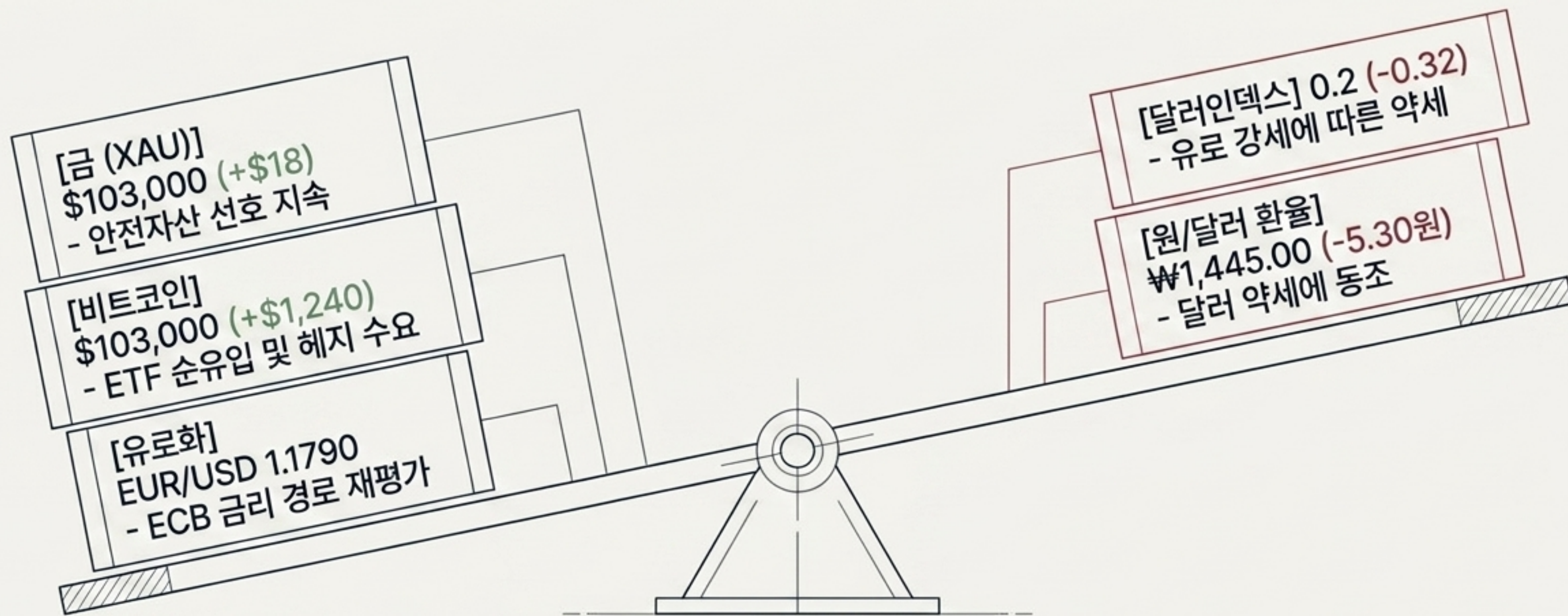
미국 10년물
4.537% (+5bp) 및
유럽 국채 금리
10bp 이상 고공행진

04 / Equities



유가 충격에 따른
유럽 증시 타격
(DAX -2.23%) 및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심리 발작

FICC 자본 이동: 안전자산과 인플레이션 헤지로의 쏠림



글로벌마켓 디커플링: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의 차이

🇺🇸 미국 (혼조/버티기)



S&P 500 7,503.85 (보합),
나스닥 25,818.69 (+0.17%).
기술주 매수세가 다우(-1.1%)
하락 및 스페이스X 급락 등
변동성을 상쇄.

🇪🇺 유럽 (극단적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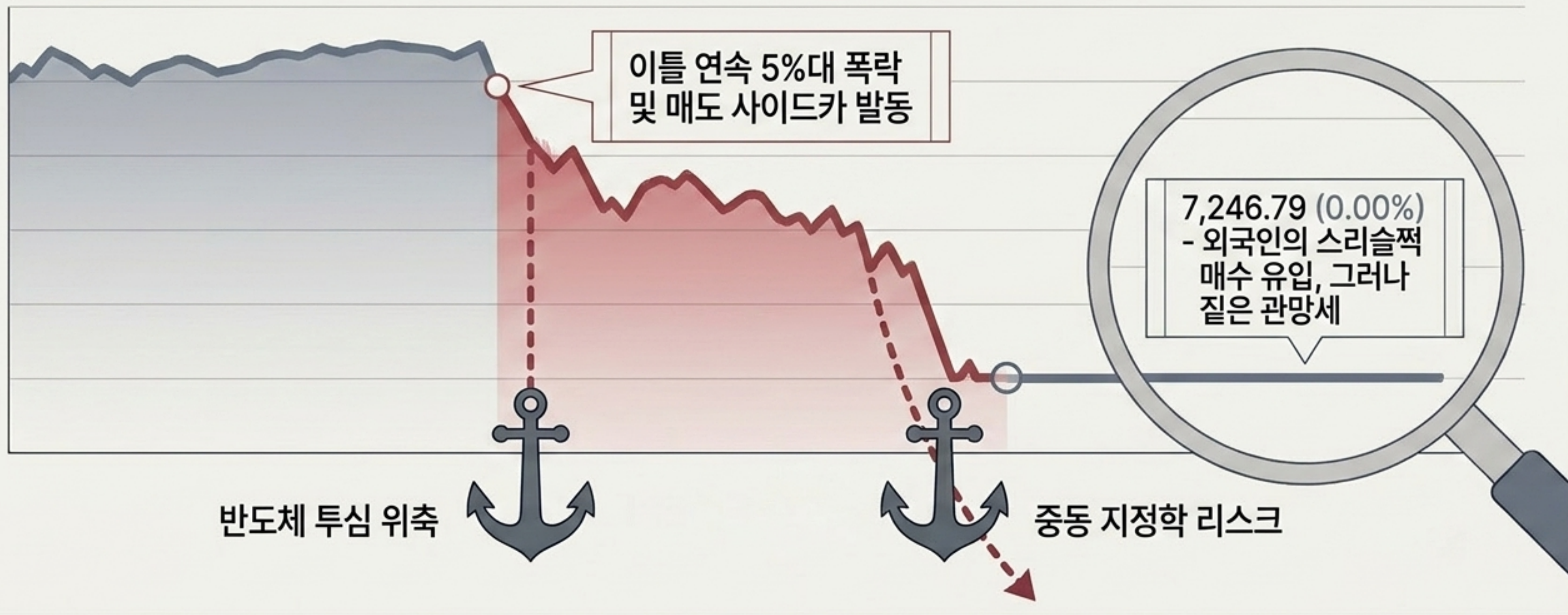
DAX -2.23%, FTSE 100 -1.66%
(에너지 비용 상승 직격탄).
단, STOXX 50은 방산주 강세 및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로
+0.62% 반등.

🌏 아시아 (복합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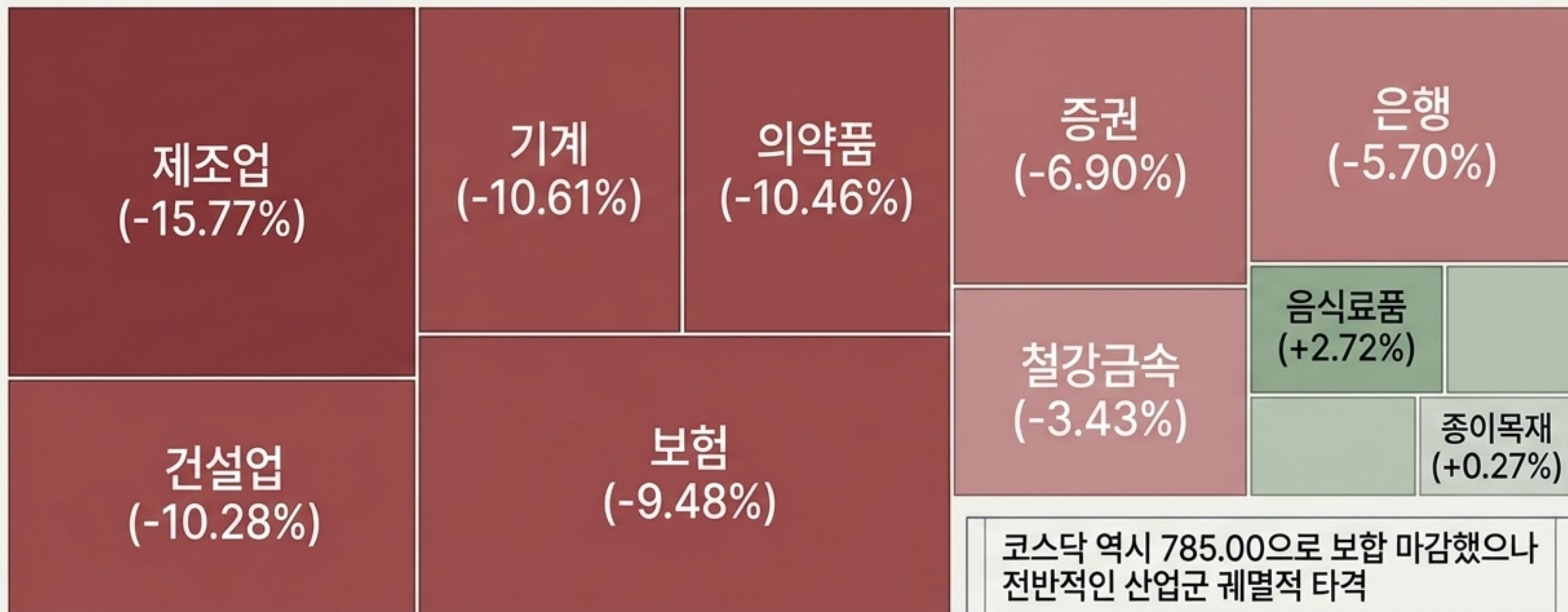
닛케이 +0.46%(엔저 수출주),
상하이 +0.45%.
반면, AI 반도체 투심 위축으로 항셍
-1.66%, 한국 증시 중급 하락장 진입.
(알리바바 +11% 등 개별 호재 공존)

코스피 7,500선 붕괴: 중급 하락장 진입과 투심 증발



Sector Damage: **SEVERE**

국내 중시 주간 섹터 타격 맵 (1-Week Heatmap)



Top Tier Watch: HOLD

Top 10 시총 상위주: 폭풍 속의 홀딩 상태

삼성전자

277,500원 (1622.3조) | +0.00%

'더 빠진다'는 비관론 속 버티기

SK하이닉스

2,076,000원 (1479.6조) | +0.00%

최태원 회장 방미 및 나스닥 상장 기대감,
2분기 실적 발표 대기

LG에너지솔루션

315,500원 | +0.00%

삼성바이오로직스

1,363,000원 | +0.00%

POSCO홀딩스

304,000원 | +0.00%

현대차

462,500원 | +0.00%

기아

156,800원 | +0.00%

LG화학

255,000원 | +0.00%

삼성SDI

412,000원 | +0.00%

NAVER

192,700원 | +0.00%

Forward Volatility: **HIGH**

Catalyst Timeline: 변동성을 촉발할 이번 주 핵심 뇌관

	7/9	7/10	7/14	7/15
Policy (통화정책)	 FOMC 회의록 (★★★★)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		
Macro (거시경제)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  기존주택판매 (★★★★)		 6월 CPI 및 근원 CPI (★★★★)	 2분기 GDP (★★★★)  6월 PPI (★★★★)  6월 실업률 (★★★★)
Earnings (실적)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JPM 실적 발표	

전술적 지휘 요약 (Tactical Command Summary)



지정학 & FICC

중동 리스크 폭발. 유가와 채권
금리 동반 상승이 유럽과 중동
시장의 즉각적 매도세를 견인.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금,
비트코인) 추세 모니터링 필수.



한국 증시

코스피 7,500선 하회 및 이틀
연속 사이드카 이후 극단적
관망세. 바닥 확인 전까지 기술적
반등을 노린 무리한 진입 자제.
SK하이닉스 실적과 한은
금통위가 1차 변곡점.



미국 매크로

물가와 고용 데이터에 철저히
종속된 시장. Fed 회의록, CPI,
주택판매 지표 결과에 따라
나스닥의 방향성이 결정됨. 대형
기술주는 신중한 분할 접근 권고.